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튀르키예

Republic of Turkiye

2023년 12월 28일 | 선임조사역 황수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784천 km ² 	인구 8,627만 명 (2023 ^f) 	정치체제 대통령제 	대외정책 친러로 외교정책 변화 
GDP 11,546억 달러 (2023 ^f) 	1인당GDP 13,389달러 (2023 ^f) 	통화단위 Lira(TRY) 	환율(U\$기준) 23.79 (2023 ^f) 

□ 튀르키예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면적과 유럽에서 가장 많은 8,528만 명의 인구(2022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함. 입지조건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단순 조립생산 위주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튀르키예 경제는 2021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및 투자 등 내수회복에 힘입어 1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성장률이 5.5%로 하락하였고 금년에도 4.0%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환율 불안 등이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임.

□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이 2002년 이후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도입한 이후 장기 집권 도모, 인권 탄압, 언론 통제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음. 2023년 5월 대선에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였음.

□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단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통 우방국이었던 미국, EU 등 서방과 마찰을 빚고 있으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와는 군사 및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모습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9. 2. 1 (북한과는 1948. 11. 11)

주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90), 사증면제협정('91),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5), 경제협력협정('05), 사회보장협정('07),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13), 원자력평화적이용협정('14), 운전면허증상호인정협정('15), 항공업무협정('15), 군사비밀정보교환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5,544,537	7,025,978	7,722,957	전자제품,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수입	1,317,083	1,237,118	1,389,347	축산물, 전자제품, 수송기계

해외직접투자현황(2023. 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03건, 3,562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경제성장률	0.8	1.9	11.4	5.5	4.0
소비자물가상승률	15.2	12.3	19.6	72.3	51.2
재정수지/GDP	-4.7	-5.1	-4.0	-1.7	-5.4

자료: IMF

2023년 경제성장률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으로 전년(5.5%) 보다 낮은 4.0% 전망

- 튀르키예 경제는 2021년에 가계소비 및 수출 호조,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듬해의 기저효과 등으로 11.4%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5.5%로 낮아졌음. 이러한 추세는 금년에도 그대로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IMF).
-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와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지속,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경제성장률 저하가 예상되며(IMF 3.0%, EIU 2.8%), 2025년 이후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리라화 약세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72.3%)에 이어 금년에도 높은 수준(51.2%)을 지속할 전망

- 리라화 약세,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50% 안팎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EIU).
-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고집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간섭으로 인해 2021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나, 금년 6월에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기준금리를 8.5%에서 15.0%로 대폭 인상한 이후 12월까지 추가로 여섯 차례 인상, 현재 42.5%를 유지하고 있음.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금년에는 GDP 대비 적자 비율이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5.4%를 기록할 전망

- 2019~22년 중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평균 -3.85%였으나, 금년에는 2월 발생한 지진의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의 여파로 동 비율이 전년(-1.7%)보다 대폭 상승하여 최근 5년래 최고치인 -5.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금년 5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금 및 공무원 임금 인상 공약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였고, 최근의 경기 위축 등으로 세수 증가도 제한적임.
- 2025~27년 기간 중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7%로 장기 평균(-4% 내외)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8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동 비율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EIU).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경 상 수 지	10,796	-31,888	-7,232	-48,751	-47,431
경상수지/GDP	1.4	-4.4	-0.9	-5.4	-4.1
상 품 수 지	-16,781	-37,874	-29,313	-89,684	-93,511
상 품 수 출	182,200	168,378	224,686	253,403	260,557
상 품 수 입	198,981	206,252	253,999	343,087	354,068
외 환 보 유 액	77,042	48,389	63,179	70,408	65,519
총 외 채	415,921	441,150	435,451	513,351	453,936
총외채잔액/GDP	54.7	61.3	53.2	56.7	39.3
D.S.R.	26.4	27.0	19.7	15.6	16.8

자료: IMF, EIU

경상수지는 2020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GDP 대비 -4.1%의 적자 전망

- 튀르키예의 경상수지 적자는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하며, 이는 주요 교역국인 EU 지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에 기인함.
- 금년도 상품수입액 증가분(109.8억 달러)이 상품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품수출액 증가분(71.5억 달러)을 약 38.3억 달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897억 달러)보다 약 4.3% 증가한 935억 달러로 전망됨.
- 연평균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 배럴당)는 2022년 약 99달러에서 2024년에 약 81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Goldman Sachs).
- 2024년에는 금융 긴축에 따른 국내 소비수요 위축, 글로벌 상품가격 상승세 둔화 등의 요인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EIU).
- 관광업이 포함된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498.7억 달러)보다 5.3% 증가한 525.2억 달러로 상품수지 적자를 일부 보전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5.4%) 대비 개선된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업은 튀르키예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대부분의 관광객은 독일 등 EU 지역 및 러시아 등지에서 유입되고 있음. 현재 EU 지역의 경기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은 튀르키예 관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대외거래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금년도 외환보유액은 전년보다 6.9% 감소한 655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1.9개월분에 불과

- 외환보유액은 2019년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770억 달러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484억 달러로 급감하였음. 이후로는 다소 회복되고 있는 양상이나 2019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금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전년보다 6.9%(4.9억 달러) 감소한 655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1.9개월분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외지불능력이 저조함(EIU).
 - 튀르키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에르도안 행정부의 독단적인 경제정책 추진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2019~20년 동안 감소하였고, 2021~22년 일시 반등하였으나 2023년에 재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UNCTAD, EIU).
- * FDI 유입액(백만달러) : 9,543('19) → 7,686('20) → 11,840('21) → 12,881('22) → 10,356('23)
- 한편,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2021년 6월과 8월에 각각 중국(60억 달러), 한국(20억 달러)과의 통화스왑 체결로 총 80억 달러를 확보하고, 동년 8월 IMF 특별인출권 배분을 통해 64억 달러를 확보하였음.

외채상환능력

총외채잔액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총수출 증가 등으로 D.S.R.도 개선 추세

- 총외채잔액 규모는 2022년 말 5,1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9억 달러(17.9%) 급증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기업, 은행 등 민간 부문의 대외차입이 대부분임. 금년에는 총외채잔액 규모가 전년보다 594억 달러(11.6%) 감소한 4,539억 달러에 이를 전망임.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61.3%를 기록 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3.2% 및 56.7%로 감소하였고, 금년에는 총외채잔액 규모 자체의 감소와 플러스 경제성장 지속이 결합되어 39.3%로 크게 낮아질 전망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최근의 상품수출 및 서비스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낮아지는 추세임(2022년 145.8% → 2023년 123.7% 전망).
- 총외채잔액에서 단기외채잔액의 비중은 2021년 27.9%, 2022년 31.9%에 이어 2023년에도 36.1%로 상승할 전망임. 2020년 리라화 환율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액 급감으로 235.6%로 급등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도 2022년 232.5%에 이어 2023년에도 249.9%로 상승할 전망임.
- D.S.R.은 IMF와 세계은행 권장기준인 18~20%를 상회하였으나 최근 낮아지는 추세임. 2020년 27.0%로 정점을 찍은 후 총수출 증가 등으로 2022년 15.6%로 개선되었으며, 2023년에는 16.8%로 전망됨.
- 한편, 리라화 가치 하락 지속 시 환율 상승에 따른 외채상환부담 가중이 튀르키예의 외채상환능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EIU 연평균 환율 전망: 2023년 23.79리라/달러 → 2028년 35.65리라/달러).

구조적취약성

산업구조 자체는 다변화되어 있으나, 제조업 부문은 단순 조립 저부가가치 중심

- 튀르키예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특히 튀르키예 정부가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과 FDI 유치정책을 추진한 결과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의 다국적기업들이 튀르키예 내에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다만, 대부분 외국기업이 자국에서 부품을 수입한 후 튀르키예 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유럽에 수출하는 형태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단순 조립 중심의 저부가 제조업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환율 불안 등도 튀르키예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인

-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를 러시아, 이란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 전체 상품수입액에서 원유·천연가스의 비중이 2020년 13.2%, 2021년 18.7%, 2022년 26.5%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처럼 높은 에너지 수입 비중은 경상수지 적자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한편, 달러당 리라화 연평균 환율은 2022년 평균 16.55에서 금년에는 23.79로 크게 상승할 전망(EIU)이며, 리라화 가치는 경상수지 적자 지속,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향후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성장잠재력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이점과 풍부한 노동력을 겸비

-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권으로 중동 국가들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 중동,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함. 아울러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생산가능인구 비율도 68%에 달하는 등 노동력이 풍부함.
- 튀르키예 인구는 지난해 8,528만 명으로 전년(8,468만 명) 대비 6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에는 8,627만 명으로 전망되어(IMF) 인구증가율이 유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최근 5년 간 0.72%, 독일은 0.10%).

1995년 EU와 관세동맹 체결 이후 상품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증가

- 튀르키예는 1995년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서유럽의 거대 소비시장을 확보한 이후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증가하여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하였음. 작년 FDI 순유입액은 129억 달러로 직전년도 대비 8.8% 증가하였음(UNCTAD).
- 관세동맹 체결 이후 상품수출액은 1995년 220억 달러에서 2010년 1,210억 달러, 2022년 2,53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FDI 순유입액도 1995년 8.8억 달러에서 2022년 129억 달러로 14.6배 증가하였고, 잔액 기준으로는 149억 달러에서 1,649억 달러로 11.1배 증가하였음.

정책성과

비전형적 통화정책 등으로 에르도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리라화 환율의 동반 상승 등 시장의 불안감 지속

- 에르도안 대통령이 비전형적인 통화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저하되었고 리라화 가치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었음.
-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EU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마찰을 빚은 결과 이들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초래하였고, 이는 튀르키예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비전형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 끝에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금년 6월 22일 기준금리를 8.5%에서 15%로 인상하였으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40%까지 인상하는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하며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경제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와 리라화 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2022년 10월 85.5%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금년 6월에 38.2%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재차 상승하여 11월에 61.4%를 기록하였음. 최근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51.2% 및 2024년 6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IMF).
- 긴축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 대비 리라화 환율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작년 말 18.67에서 금년 6월 초 20.80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년 12월 22일 현재 29.24까지 상승함(Bloomberg 기준).
- * 기준금리 : 19.0%(‘21.3월) → 10.5%(‘22.10월) → 8.5%(‘23.5월) → 15.0%(‘23.6월) → 40.0%(‘23.11월)
- * 환율(Lira/US\$) : 7.42(‘21.3.1) → 18.53(‘22.10.3) → 19.44(‘23.5.1) → 20.80(‘23.6.1) → 29.24(‘23.12.22.)

외환위기 방지를 위해 환율안정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였으나,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신념에 집착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압에 굴복하여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비전형적이고 반시장적인 통화정책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하였음. 이는 단기자금 유출 및 외환 부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함.
- 비전형적인 금리정책(물가 상승 시 금리 인하)은 금년 6월 이후 종료되었으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음.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통화정책 지속, 재정건전성 강화, 구조개혁 추진 등이 필요함(EIU).

정치동향

에르도안 대통령, 독단적 국정운영과 장기집권 도모로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

- 이스탄불 시장과 국무총리를 거쳐 2014년 8월 집권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슬람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2018년 6월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며 재집권하였으나, 초대 대통령(케말 아타튀르크)이 확립한 정교 분리 세속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우며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7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정부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반대파로 분류된 이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사법부와 군부를 장악하였음.
-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4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장기집권을 도모하여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음.
- 개헌의 주요 내용은 5년 임기의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행정명령 발효,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부 인사권까지 부여한 것으로, 3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였음.
- 아울러 대통령은 대선 및 총선을 조기 시행할 수 있고 대선 승리 시 중임이 가능하며, 중임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기 대선에 재차 출마 가능함.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년 5월 조기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2028년 대선 승리 시 2033년까지 재임이 가능함.

2018년 총선에서 여권연대가 승리하였으나 2019년 지방선거 이후 집권세력이 분열 조짐

-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은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민족주의자운동당(MHP)과 연합을 이루어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보수 성향의 여권연대(People's Alliance)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도좌파 공화인민당(CHP)은 2017년 11월 창당한 중도우파 좋은당(IYI)과 함께 야권연대(Nation Alliance)를 구성하고 있음. 의회에는 친쿠르드족 성향의 인민민주당(HDP)도 진출해 있음.
- 2018년 6월 총선 결과 총 600석 중 여권연대가 344석(AKP 295석, MHP 49석)으로 과반인 57.3%를 차지하였고, 야권연대가 189석(CHP 146석, IYI 43석으로 31.5%), HDP가 67석(11.2%)을 차지하였음.
- 한편,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이스탄불, 앙카라 등 주요 도시에서 여권 후보가 낙선하고 AKP의 위상이 추락하자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 3권 분립 침해, 과도한 종교적 보수주의 등에 반감을 가진 일부 정치인들이 신당을 창당하는 등 AKP 내부 분열이 나타남.
- 높은 물가상승률, 리라화 약세, 만연한 부패 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치러진 2023년 5월 14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49.52%를 득표하여 과반수(50% 이상) 득표에 실패, 2차 결선투표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워 52.18%를 득표하여 CHP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47.82%)에게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하였음.
-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다수 제기되었고, 5대 주요 도시(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부르사, 안탈리아) 중 부르사를 제외한 4개 도시에서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가 승리하여(특히 이즈미르에서는 63.31% 득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악력이 예전만 못함을 보여줌.
-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여권연대가 600석 중 322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이는 2002년 이후 최저 의석 수입. 213석을 차지한 야권연대는 '에르도안 타도'라는 공동의 목표가 무산되면서 분열 가능성이 존재함(EIU).

사회동향

에르도안 대통령의 여론 통제, 언론 탄압 등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7월 군부 쿠데타를 진압한 이후 언론·출판에 대한 정부의 검열과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최대 정적인 이슬람 성직자 팻홀라르 귤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 등을 폐기하고 관련 서적 출판을 금지하는 등 여론 억압이 심해지고 있음. 2018년에는 귤런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망명하고 있다는 이유로 펜실베이니아 주 이름이 포함된 교과서를 전량 폐기한 바 있음.
- 튀르키예 언론 자유도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하는 언론자유도지수는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조사대상 180개국 중 2021년 153위, 2022년 149위, 2023년 165위 등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등과 비슷한 수준임.

난민 유입, 지진 발생 등으로 대규모 사회적 비용 발생

-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이 인접국인 튀르키예로 유입되어 약 38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머물고 있으며 난민 유입은 재정지출 증가, 난민 유입 지역의 물가 상승, 난민에 대한 반감 증대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
- 한편 시리아에서 유입되는 난민은 일자리가 많은 이스탄불로 몰리자 튀르키예 정부는 불법으로 이스탄불에 체류하는 난민을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2019년부터 튀르키예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이스탄불 거주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음.
- 시리아 내전으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처리를 위해 EU는 2016년 튀르키예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60억 유로를 지원하는 대신 그리스로 유입된 난민을 튀르키예가 수용토록 조치하였음. EU는 2021년 6월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2021~2024년 중 튀르키예에 30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키로 함.
- 금년 2월 남부 지역 강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가 1천억 달러로 추산되며 3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주택 30만 호 이상이 붕괴되었음. 튀르키예 정부가 당초 발표한 32만 호 주택건설은 현재 4만 호 완공에 그치고 있으며,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복구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쿠르드족 문제는 안보의 지속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 세계 최대 유랑민족(약 3,000만명)인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분포하고 있음. 쿠르드족 무장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은 튀르키예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에 주둔하며 테러 활동 등으로 쿠르드족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 있음.
- 현재까지 4만명 이상의 튀르키예 군인과 민간인이 PKK의 공격으로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는 PKK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음. 향후에도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 분리 독립 주장에 대해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쿠르드족 문제는 안보에 가장 큰 불안요인임.

국제관계

2016년 미국인 브런슨 목사 구금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 악화

- 튀르키예의 이스미르에 20년 이상 거주하며 장로교회를 운영해온 미국인 복음주의 장로교 목사 앤드루 브런슨(Andrew Brunson)은 2016년 10월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이슬람 성직자 펫홀라흐 귄론과 결탁하여 정부 전복을 도모했다는 상식 밖의 죄목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튀르키예 검찰은 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함.
- 이에 미국 정부가 튀르키예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경제제재를 가하자 튀르키예 법원은 2018년 10월 그의 석방을 결정함.
- 미국 정부는 2019년 5월 16일 튀르키예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경제제재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였으나, 바로 다음날 튀르키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여 양국 관계는 냉각 상태를 지속함.
- 2017년 4월 튀르키예 정부가 러시아산 미사일 무기체계를 도입하자, 미국은 튀르키예를 F-35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튀르키예에 F-35 전투기 수출을 금지하였음.
- 튀르키예 정부는 2022년 11월 13일 발생한 이스탄불 폭탄 테러 사건(6명 사망, 80여명 부상)의 배후로 쿠르드족 무장단체를 지목하고 미국이 이들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의 조의를 거부하였음.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 등으로 EU와 갈등 관계이나 그리스와는 최근 관계 개선 조짐

- EU는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난민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 튀르키예와 협력하여 왔으나, 2016년 7월 쿠데타 진압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언론 탄압, 사형제 재도입 등 비민주적 행태 심화로 EU 집행위원회가 2016년 11월 튀르키예의 EU 가입 심사를 중단한 후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함.
- 최근에는 지중해 동부 키프로스 해역의 가스전 개발과 관련하여 그리스 및 EU 등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그리스계가 다수)이 프랑스 Total, 이탈리아 Eni 등 서방 에너지기업들과 2017년 7월 가스전 개발을 개시하자, 북키프로스(튀르키예계가 다수, UN 미승인국)를 지원하는 튀르키예는 이에 반발하여 군사적 개입을 시도함.
- * 키프로스는 1974년 8월 내전 결과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키프로스는 튀르키예의 영향권이고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은 2004년 EU에 가입함. 키프로스 해역의 가스전 개발을 계기로 튀르키예, 그리스 등 관련국 간에 배타적경제수역(EEZ) 확정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5월 튀르키예가 북키프로스 정부 승인하에 주변 해역의 가스 탐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자 키프로스 공화국, 그리스, EU 등이 반발하여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EU 지원금 삭감 등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나 튀르키예는 탐사 작업을 강행하여 긴장이 고조됨.
- 다만, 뿌리 깊은 갈등 관계이던 그리스와는 금년 2월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시 그리스가 제일 먼저 구호팀을 보내면서 양국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금년 12월 7일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리스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국제관계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추구하며 중동 및 코카서스 지역으로 경제협력 확대 도모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는 동시에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반대하고 러시아와 에너지 및 관광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리 위주의 양자 외교정책을 펴고 있음.
- 최근 중동 및 코카서스 지역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금년 7월 에르도안 대통령이 카타르(금융협정 체결), 사우디아라비아(드론 수출), UAE(투자협정 체결)를 방문하였고, 아제르바이잔 등 코카서스 지역과도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비율은 하락세이며, 2023년 6월 말 0.03%로 낮은 수준

- 2023년 6월 말 기준 튀르키예의 OECD 회원국 ECA 앞 원리금 잔액은 346억 달러(단기 49억 9,900만 달러, 중장기 296억 4,000만 달러)임. 이중 연체액은 1,140만 달러(단기 100만 달러, 중장기 1,040만 달러)로 전체 잔액의 0.03%에 불과하며 2022년 6월 말 기준(0.07%)보다 하락한 수치임.
- 연체비율(%) : 0.13('20.6월) → 0.07('21.6월) → 0.07('22.6월) → 0.03('23.6월)
- 한편, EIU는 튀르키예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S.R.이 2024년에는 49.0% 및 28.4%를 기록하겠으나 2025년에는 44.5% 및 23.8%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다만, 리라화 가치 하락 등이 외채상환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3.01)	5등급(2022.01)
Moody's	B3 (2022.08)	B2 (2020.09)
Fitch	B (2023.09)	B+ (2022.02)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튀르키예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을 부여

- S&P,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3사는 국제유가 상승, 경상수지 적자 지속, 권위주의적 통치 등을 이유로 튀르키예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이며, 현재 모두 투기 등급으로 평가함.
- 한편, OECD는 튀르키예에 대해 2018년 6월 5등급을 부여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튀르키예 경제는 2021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 가계소비 호조, 산업생산 및 수출호조 등으로 11.4%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구매력 저하 등의 영향으로 2022년 5.5%에 이어 2023년에도 4.0%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에르도안 대통령이 개헌으로 대통령제를 도입한 이후 3권분립을 침해하고 언론 통제, 정치인 탄압 등 독재를 추구하면서 정치·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주요 도시에서 승리한 후 여권 내 분열이 나타났으며, 2023년 6월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2차 결선투표까지 가서 재선에 성공하는 등 장악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인 브런슨 목사 억류 사건, 러시아제 미사일 구매, 키프로스 해역 천연가스 탐사 등의 문제로 미국, EU 등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NATO 회원국으로서 무력전쟁을 비난하는 등 양자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음.